

2025 09
제248호



대덕라이프 QR



대덕구 카카오톡 채널QR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청소년 수상레포츠 체험행사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라이프 제호 서체 : 글고운 캘리그래피 박진희 作

- 03 구정소식
- 05 십자말풀이
- 06 대덕구 부서를 소개합니다
- 07 대덕구 맛집을 찾아서
- 08 열린의정
- 10 [대덕구기관장협의회] 이규범 대전철도차량정비단장
- 11 [단체 인터뷰]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 12 대덕톡톡



골목에 생명을... '대전 0시축제 with 대덕거리 페스티벌' 성료
중리·비래·범동 일원서 이틀간 열려
민관 협력 골목형 축제 '호평'
"지속 가능한 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

대덕문화관광재단, '2025 길 위의 인문학' 참가자 모집
도시, 기억의 층·대덕에서 찾은 조선의 맛 등 2가지 프로그램 운영
강연·탐방·체험 중심 인문학 감수성 함양...
선착순 20명·참가비 무료

예비·신혼부부 '결혼실전 아카데미' 참가자 조기마감
저출생 대응 프로젝트 일환
한남대 평생교육원서 오는 10월까지 진행

2025년 장애인식 개선 체험·전시 행사 큰 호응
주민·장애인 단체 등 150여 명 참여...
수어 퍼포먼스·감각 체험 등 인기

지역 미용업 종사자 전문 기술 교육 실시
10회 과정·130명 참여...
최신 미용 트렌드·신기술 등 실습 중심 교육

'취약계층 화재 예방 안전대책' 안전멀티탭 보급 추진
자동 전기차단 기능 갖춰 합선·과열 등 화재 위험 최소화
기초생활수급자 등 300가구 대상
노후도·안전 취약 정도 등 종합 검토해 선정

독서의 달 맞이 '2025 하반기 도서관 인문학 플러스' 운영
내달 석봉·안산·송촌도서관서
가족과 함께하는 북토크·체험형 공연 등

발행인 대덕구청장
편집인 미디어홍보과장
발행처 미디어홍보과(TEL:608-6606)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홈페이지 www.daedeok.go.kr
발행일 2025년 9월 1일(제248호)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본격 운영

거동 불편 어르신·장애인 가정 방문해 신청부터 카드 발급까지 지원
도움 필요 주민 사전 감지... 신청 전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호응’



대덕구는 이동이 어렵거나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의 거주지를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상담부터 접수, 선불카드 전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다. 구는 서비스 신청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사전에 감지해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집단 신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편, 대덕구는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9월 12일까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방문 상담 등 다양한 창구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덕구 ‘표준작업절차서’ 수립 완료

지역 내 유해·위험성 높은 31개 공정 대상 작업목적·준비사항 등 정리
고령 근로자 위해 사진 자료 등 시각적 설명 강화... 업무 표준화 ‘눈길’
관리 감독 등 교육 자료 사용 예정... “아차사고·산업재해 예방 앞장”



대덕구가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유해·위험작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표준작업절차서(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를 수립하고, 현업부서 근로자 17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무리했다. 이번 표준작업절차서 수립은 지난 2~7월 6개월간 중대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현업부서를 대상으로 현장 근로자 인터뷰, 공정별 위험성 평가, 법적 기준 검토 등을 거쳐 현실적이고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설명서로 제작됐다. 표준작업절차서에는 지역 내 유해·위험성이 높은 주요 31개 공정을 대상으로 △작업목적 △준비사항 △세부 작업절차 △안전조치 사항 등이 상세히 정리돼 있다. 특히 고령 근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한 사진 자료를 포함해 시각적 설명을 강화했으며, 사전 재해 예측을 통한 위험 요소 차단 방안과 반복적인 ‘아차사고’와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는 이번 절차서를 각 부서에 배포해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활용하고, 향후 관리감독자 및 신규 근로자 교육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 안전의식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안전행정 강화 및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대덕구 장애인거주시설 로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선정

중증·고령 장애인에 24시간 의료 서비스 제공 예정
장애 유형별 통합 돌봄프로그램 제공 등 의료 서비스 질 향상 기대

대덕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로템’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증·고령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

생활 및 건강관리 강화,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템’은 시범사업 선정을 통해 거주시설 내에 의료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입소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통합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의료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지역 병원과의 의료협약을 통해 다학제 팀(여러 전문 분야의 의료진이 협력해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 구성, 의료 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밤에도 안심하고 택배 받는다... ‘대덕 짐캐리 무인택배함’ 운영

주거밀집지역 공공시설에 8기 설치
2024년 5331건·2025년 상반기 2852건 이용
범죄 예방·택배 기사 노동시간 감소 등 ‘호응’



주민 생활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대덕 짐캐리 무인택배함’이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구청(2개), 행정복지센터 2곳, 도서관 등 지역 내 공공시설에 총 8기의 무인택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무인택배함 이용 건수는 2024년 한 해 동안 5531건 이용에 이어, 2025년 상반기에만 2852건의 이용수를 기록하는 등 월평균 475건 이상이 꾸준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밀집지역에 설치해 자택에서 택배 수령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택배 배달을 가장한 강력범죄 발생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수령자의 부재로 인한 재방문 횟수를 줄이고, 야간 배송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장시간 노동 부담을 덜어주는 등 택배 기사의 과도한 노동 시간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무인택배함의 이용 방법은 수령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 비밀번호와 함께 택배함에 물품을 넣으면 되고, 수령자는 문자로 받은 비밀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안전하게 물품을 찾아갈 수 있다. 연중무휴 24시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1월까지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가족 단체 대상... 자연물 만들기 오감 자극 활동 제공
계절별 맞춤형 프로그램 통해 전인적 성장 도모



대덕구가 유아들이 자연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산림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대청공원 유아숲체험원에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영유아 및 가족 단체를 대상으로 비탈면 오르기, 자연물 만들기, 나무 이야기 듣기 등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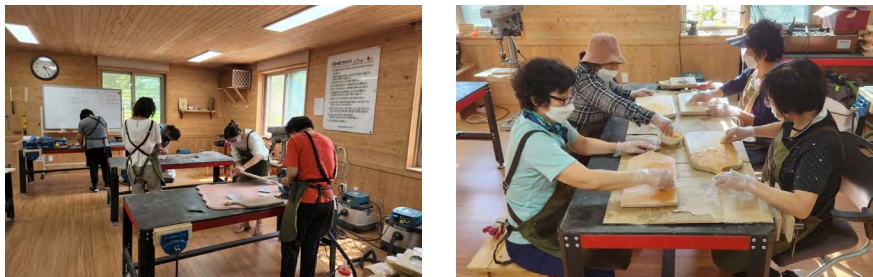
프로그램은 계절별 특성에 따라 다채롭게 구성됐으며,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인지 발달을 도모하고 창의력, 사회성 향상 등 전인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구는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했다. 교육 시간과 내용은 참여자와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조정되며, 체험료는 전액 무료이다.

참여를 희망자는 전화(☎042-222-4632) 또는 현장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생활 속 목공예로 힐링하세요”

대청목재문화체험장, 11월까지 목공예 체험 운영
연령대 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전화·현장 접수 통해 교육 가능



대청목재문화체험장이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목공예 체험 공간으로 주목 받고 있다.

대덕구 대청목재문화체험장은 2019년 목재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목공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매년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지역 주민들에게 총 174회의 목공체험 수업을 제공해 목재의 쓰임과 생태적 의미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도 전문지도사의 지도 아래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화, 목, 금요일 오후 2~5시까지 운영되며, 특히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목공예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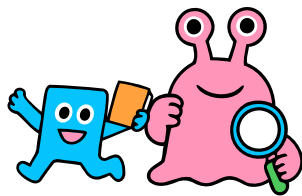
먼저 어린이들은 목재조각이나 킴 만들기 체험을 통해 창의력을 기르고, 청소년은 생태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목재 디자인 교육을 진행한다.

성인의 경우, 실용적인 목재 공예품 혹은 소형 가구 제작을 통해 집중과 몰입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노인층은 정서적 안정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전통 목공예 체험이 마련돼 있다.

모든 체험은 무료로 진행되며, 재료비만 별도로 부담하면 된다. 참여는 전화(☎042-671-2239)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퀴즈풀고 선물받고!!

QUIZ TIME



참여 대상 대덕구민, 대덕라이프 구독자 누구나
접수기간 2025년 9월 1일(월) 오전 9시 ~ 9월 10일(수) 오후 11시 30분까지
참여방법 십자말풀이 정답을 작성하여 제출(1인 1회)
제출방법 오른쪽 하단의 네이버폼 QR코드를 통해 십자말풀이 정답을 작성하여 제출

정답을 맞히신 분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6명을 선정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선물해 드립니다.



①	①								⑤
		⑥							
							③		
	②			③					
	②								
⑥					④				
				④					
						⑤			

대덕라이프 십자말풀이 이벤트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취득하며,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당첨 및 선정 확인 등 이벤트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됩니다.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에 동의하실 경우에만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이벤트 당첨 및 선정 확인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벤트가 종료된 후 1년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할 권리 : 이벤트 당첨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 상품 받으실 분의 개인정보 오류나 부재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대덕구 미디어홍보과(☎608-6606)

십자 말풀이

가로퀴즈



- 대덕구에서 열리는 골목상권 활성화 축제로 목상동, 송촌동, 석봉동에서 8월 23~24일, 30~31일, 9월 6~7일 열리는 축제의 이름은?
- 명사, 햄, 소시지 따위를 재료로 하여 끓인 찌개. 예전에 미군 부대에서 나온 고기로 찌개를 끓였던 데에서 유래한다.
- 명사,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움. 또는 그런 활동. 예1) 대덕구 자율방재단이 지난 8월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아산, 예산지역을 방문해 ○○○○ 활동에 나섰다. 예2) 주말이면 보육원으로 ○○○○ 활동을 간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부 일원에 대덕구를 지키는 큰 산. 산줄기가 닭발처럼 퍼져 나갔다 하여 ○○○이라고 부른다.
- 명사, 화물을 실어 나르는 자동차, 기차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대덕구 대표 SNS 상징 캐릭터. 십자말풀이 하단에 있는 무표정한 오리 캐릭터의 이름은?

힌트 : 대덕구 홈페이지 - 대덕구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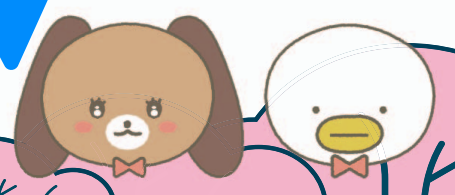
세로퀴즈



- 대덕구 대표 SNS 상징 캐릭터. 십자말풀이 하단에 있는 매력적인 강아지 캐릭터의 이름은?
힌트 : 대덕구 홈페이지 - 대덕구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4년제 사립 종합대학교로,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1956년 세운 학교의 이름은?
- 명사, 영상 영화 제작이 완성되어 제작사와 배급사가 극장과 계약을 맺으면서 영화를 처음으로 상영하기로 정한 날.
예1) 오늘 내가 좋아하는 영화 ○○○이라서 영화보러 가야 돼.
예2) 영화 ○○○이 한 달가량 앞당겨져 드라마 스케줄 등과 겹쳐 미디어 인터뷰는 물론 무대 인사도 불가능해졌다.
- 명사, 등산할 때 신는 신. 보통 창이 두껍고 바닥이 울퉁불퉁하며, 벗겨지지 않도록 만들어졌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의 부속 기관으로, 객화차와 전기기관차를 주로 정비한다.
힌트 : 대덕라이프 9월호 10면 대덕구기관장협의회 인터뷰 단체의 기관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행정동, 법정동으로 대덕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대덕문화체육관, 대덕국민체육센터 등이 위치해 있는 동의 이름은?



정답제출하기



대덕구 부서를 소개합니다



인구정책과

문화관광체육과

‘미래전략국’은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신설된 국(局)이다.

인구정책과, 문화관광체육과, 미디어홍보과, 도서관운영과 등 총 4개 과(課)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소멸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대한민국 미래 이슈의 실질적 해결방안 도출 ▲행정 메시지 직관적·입체적 전달 및 소통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관광·체육·교육 등 연계 및 시너지효과 창출 등을 위해 신설된 부서이다.

이번 9월호 대덕라이프에는 미래전략국 주무과로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인 인구정책과와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문화관광체육과를 소개하려 한다.

인구정책과 (본관 1동 3F)



인구정책과는 출생률 저하, 청년 유출, 지방소멸 등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미래를 위협하는 현실 속에서 청년 지원, 일자리 연계, 주거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인구 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단기 대응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인구 전략을 실현하는 중심 조직으로 기능하게 된다.

인구정책과는 ▲인구일자리정책팀 ▲청년청소년팀 ▲교육협력팀 ▲평생학습팀 등 총 4팀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인구일자리정책팀은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인구 관련 시책 발굴 및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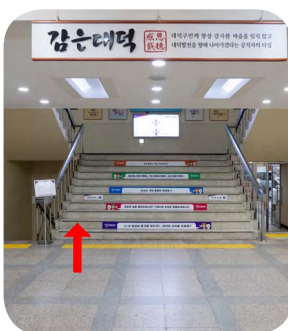
있으며, 청년청소년팀은 청소년 육성·보호 정책 기획, 청년 정책 기획,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교육협력팀은 대덕혁신교육지구 사업 기획·

운영과 학교폭력예방 교육사업, 각급학교교육경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평생학습팀은 평생학습 운영계획(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고 배달강좌제 프로그램 운영 및 대덕미래아카데미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문화관광체육과 (본관 1동 2F)



문화관광체육과는 ▲지역문화예술 진흥 ▲창의적인 문화·체육활동 지원 ▲전통문화 계승·발전 ▲수준높은 문화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크게 3개 팀이 있다.

먼저 문화예술팀은 대덕구의 대표 인물인 동춘당 송준길 선생의 인문학적 사상과 학문적 업적을 담은 역사문화축제 ‘동춘당문화제’와 조선 후기 여류시인인 김호연재의 삶과 업적을 돌아보는 ‘김호연재 축제’ 등 행사를 추진하고 문화유산 보수·관리, 역사인물 선양사업, 노래 연습장 지도·단속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관광축제팀은 대덕구 대표

축제인 ‘대덕물빛축제’와 대덕구를 돌아보는 ‘대덕시티투어’를 추진하고 축제 및 관광 콘텐츠 신규 발굴 및 개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팀은 체육진흥 시책 개발 및 추진과 대덕구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생활 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사업, 체육시설업 신고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한그릇에 마음을 담는 집

석봉동 대로식당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끼니를 거르는 일이 다반사다. 갓 지은 밥을 따듯한 국에 말아 하루룩 한그릇 똑딱 해치우는 아침 식사는 물론 퇴근 길 엄마가 해주는 찌개와 아삭한 김치, 담백한 밑반찬 밥 만큼 속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밥이 또 있을까.

대덕구 석봉동에는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열고 어머니의 손맛으로 정성 가득한 아침상을 차려주는 한식 전문점 대로식당(대표 탁관홍·전수연 부부)이 있다. 이곳은 지난 2008년 6월 오픈해 17년 넘게 신탄진 지역 공단 근로자들의 든든한 엄마표 아침식사 지킴이로, 인심 좋은 동네 밥집으로 성장해 온 맛집이다. 이른 아침 영업준비를 하는 중이라도 들어오시는 손님이 있으면 이내 따듯하고 정갈한 밥상을 차려 내놓는다고 한다.

대로식당의 인기 메뉴는 매콤, 달콤, 짭짤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져 있는 제육볶음과 오징어볶음이다. 간이 세지 않아 자극적이지 않고 메인 재료인 오징어(돼지고기)가 질기지 않고 부드럽다. 특히, 같이 들어간 대파와 양파가 양념을 촉촉이 머금고 있어 이들과 한입에 쏙 넣으면 그 맛과 식감에 절로 웃음이 난다. 또, 청국장과 된장찌개는 전통방식 그대로의 재료에 호박, 대파, 양파와 풋고추를 가미해 뒷맛이 조금 칼칼하다. 어린 시절 엄마가 손수 끓여주신 뽕양국물에 콩 알갱이가 가득 들어있는 구수하고 깊은 맛을 제대로 구현해 냈다. 이 밖에 동태 한 마리 썰어 넣고 각종 채소와 양념장을 더해 얼큰하게 펄펄 끓여 먹는 동태찌개와 묵은지, 부드러운 두부와 돼지고기가 진한 감칠맛을 선보이는 김치찌개도 대로식당의 별미라 할 수 있다.

대로식당의 엄마표 집밥은 아내인 전수연 대표가 매일 직접 만드는 정갈하고 맛깔난 8가지 밑반찬에서 완성된다. 파리고추 멸치볶음, 오이무침, 버섯볶음, 호박볶음, 시금치 무침 등 매일 신선한 재료를 공급받아 손질해 세지 않은 간으로 정성스레 반찬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탁관홍·전수연 부부는 “좀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아침마다 부지런을 떨어야 신선한 재료를 구하고 직접 만들어야 그 정성과 손맛이 손님들에게 전달됩니다”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요리해 손님들이 따듯한 집밥의 향기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대덕구 대덕대로1605번길 7(석봉동 201-3) / 0507-1409-8892
- 제육볶음·오징어볶음·고등어조림 (각 2인이상)각 2만원, 동태찌개·김치찌개 각 1만원, 된장찌개·청국장 각 8000원
- 영업시간 : 08:00~21:00(브레이크 타임 15:00~17:00)
- 휴무일 : 연중무휴

소박하지만 건강한 한 끼를

석봉동 청보리골



소박한 나물 몇 가지와 고추장, 참기름만 있으면 입맛 없는 날에도 한 끼 똑딱 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보리밥이다. 탱글탱글한 보리의 밥알이 입안에서 춤을 추듯 툭툭 터지는 식감과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청보리골(대표 장광숙)은 시금치, 무생채, 고사리, 애호박볶음, 버섯볶음, 콩나물, 열무김치 등 보리밥에 취향껏 넣어 비벼 먹을 10여 가지의 반찬들을 낚그릇에 수를 놓듯 정갈하게 채워 추억의 소쿠리에 담아 손님상에 내놓는다.

반찬들은 전체적으로 싱겁하다. 강한 자극에 길든 입맛에는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냥 반찬만 먹어도 속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간이 세지 않아 집밥처럼 담백하고 깔끔하다는 게 손님들의 평이다.

청보리골의 보리밥은 고슬고슬한 보리쌀에 약간의 흰쌀을 섞어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한다. 특히, 보리밥의 화룡점정(畫龍點睛)이라 할 수 있는 된장찌개가 일품이다. 직접 담근 된장과 다시마와 멸치로 진하게 우려낸 육수에 두부, 파, 청양고추 등을 썰어 넣고 끓여서인지 칼칼하고 깔끔한 맛이다. 보리밥과 소쿠리에 담겨 나왔던 나물류 반찬들은 셀프바에서 양껏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것은 가격도 단돈 9000원으로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보리밥 무한 리필’ 식당이라 할 수 있다.

좋은 식재료로 직접 정성껏 만들어야 손님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신념 때문에 장 대표는 매일 아침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공급 받아 직접 그날 손님상에 내놓을 반찬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장광숙 대표는 음식점 운영을 시작한 이후 꾸준히 주변의 홀몸 어르신들께 반찬을 만들어드리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굶는 아이들에게 따듯한 식사로 용기를 북돋아 줬다고 한다. 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사랑의 사다리 밴드 등에 정기 후원하는 것은 물론 청보리골을 개업한 이후에는 매월 첫째 월요일 동네 어르신들을 초대해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있다.

세상을 살면서 받은 사랑과 관심만큼 청보리골 손님들과 모든 이웃에게 따듯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장광숙 대표는 “앞으로도 소박하지만 건강한 음식으로 손님들에게 만족을 드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대덕구 대덕대로 1554(석봉동 309-11) / 0507-1483-5562
- 보리밥(기본) 9000원, 보리밥 A세트(오징어볶음) 1만4000원, 보리밥 B세트(제육볶음) 1만5000원, 보리밥 C세트(떡갈비) 1만5000원, 한방삼계탕 1만5000원, 들깨수제비 1만원, 미니족발 1만2000원, 짜글이(中) 2만2000원
- 영업시간 : 10:30~21:30(브레이크 타임 : 평일 15:00~17:00)
- 휴무일 : 연중무휴

대덕구의회, 지속가능한 ‘대덕형 정책’ 제안



대덕구의회가 ‘지속가능한 대덕’을 위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구의회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는 지난 8월 11일 대덕구청 대회의실에서 거점시설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 특성과 기능에 맞춘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신탄진-세대 통합형 △오정동-청년 시너지형 △대화동-다문화 포용·지역 커뮤니티 허브 등 권역별 기능과 역할에 집중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중간지원조직 구축 △전문적 기획·관리 체계 마련 △네트워크 확장·상호 협력 △민관협력형 운영 개념 도입 등이 함께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거점시설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선 물리적 기반 구축뿐 아니라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시환경 연구회도 이날 최종보고회를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인구 유지를 위한 도시환경정책을 소개했다.



연구회는 특히, 연구 결과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청년 연령대별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정주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한 추진 정책으로 △도시철도2호선 오정역과 연계한 복합 환승 거점 구축 △대전 초차장 입체화 사업 부지 일원 전문 연구개발·과학기술 기업 집중 유치 △중리동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을 통한 청년임대주택 조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송촌·비래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용전근린공원 특화 사업 △대덕특구 재창조를 위한 상서평촌지구 내 디지털 혁신파크 조성 △체험형 공장 지원을 통한 공업지역 문화복합개발 실현 등 정책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전석광 의장은 “오늘 발표된 각종 제언이 실제 정책과 조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고

횡단보도, 선택이 아닌 필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고령 보행자와 자전거 사고는 증가했다. 실제로 보행 중 사망자는 전년보다 3.8% 증가했으며, 이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절반을 넘었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망자의 비율은 36.5%로 자동차나 이륜차 승차 중일 때보다 높았다. 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 ‘보행자 우선’의 교통 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한 현실이다. 특히, 사고 현장을 들여다보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차량 중심으로 설계된 도로 구조가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으로, 보행자와 차량 간의 동선을 분리해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러한 횡단보도가 필요한 곳에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횡단보도는 다른 횡단 시설로부터 100~200m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기본적으로 일정 거리 이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며, 이 절차 때문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못한 곳이 필자가 사는 대덕구 중리동에도 있다.

오문창순대국밥에서 용전 대림한숲아파트로 가는 도로(중리동 430)가 바로 그곳인데,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신청했으나, 이 구간에는 이미 횡단보도가 많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필자는 최근에도 이 구간에서 노인과 아이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위험천만하게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횡단보도 설치 간격 기준이 따로 없으며, 프랑스는 인근 5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에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단속·처벌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횡단보도 설치 간격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횡단보도는 단지 선을 긋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는 작은 배려이자,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주민 편의를 위한 실천이자, 모두가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거리를 위한 시작이다. 우리의 기준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 사고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 보행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 그 시작은 한 줄의 횡단보도에서 출발한다.



조대웅 의원

주목 이조례



조대웅 의원

국가·국어로 대한민국 품격 높인다 국기선양·게양, 국어 진흥 지원 조례

조대웅 의원(국민의힘, 비례·송촌·중리동)이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와 ‘국어 진흥 조례’를 통해 국가 품격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기선양·게양 조례는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 마음을 드높이기 위한 국기 게양·관리,

국기선양 사업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국어 진흥 조례에는 국어 발전 수립과 공문서·정책명 등의 한글 사용 관련 내용이 담겼다.



양영자 의원

난임부부에 희망 처방한다 대전자치구 최초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양영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전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통해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학적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난임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 조례는 지역에 사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한의학적 난임치료 지원 근거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대덕구민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한약 투여나 침구 치료 등의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승연 의원

골목상권에 활력 불어넣는다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유승연 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키우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조례는 상인 역량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인회 변경 신고 기간 7일→10일 △개설 예정일로부터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데 따른 임시시장 신고 취소 기준 기간 10일→14일 등 내용을 조정했다.



김기흥 의원

노동 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김기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통해 노동 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조례에는 각종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일을 받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법률·노동·경영 상담과 지원, 산업재해 안전교육·보호장구 지원, 생활안정 도모·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등이 있다.



박효서 의원

지역 체육시설, 구민 우선 사용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박효서 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역 내 체육시설을 구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구민의 체육시설 우선 사용 규정을 신설한 게 골자다. 체육시설 이용 신청이나 허가 변경 시, 구민이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수용 범위 초과 시 구민에게 우선권을 주던 조항은 현실 적용의 어려움 등을 들어 삭제했다.



이준규 의원

삶의 질 향상 위한 입법활동 ‘눈길’ 생활문화 진흥,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

이준규 의원(국민의힘, 오정·대화·법1·법2동)이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와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생활문화 진흥 조례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 발전에 필요한 사업·지원 사항을 규정해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는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한 근거가 담겼다.

대덕구기관장협의회 이규범 대전철도차량정비단장

지난 126년간 국민의 발과 물류 대동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한국철도. 철도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한 한국철도공사(KORAIL)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위해 철도 차량의 정비와 유지를 전담하는 '철도차량 정비단'을 수도권, 대전 등 5곳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덕라이프 편집자는 이규범 대전 철도차량정비단장을 만나 철도차량 정비의 중요성, 핵심 추진사업, 지역 상생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이 규 범
대전철도차량정비단장



Q. 직원 작업 환경 개선 등 산업안전 관리시스템을 간략히 소개해 주다면?

대전철도차량정비단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통해 안전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고예방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직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NS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안전제안 제도'를 운영해 직원들이 겪는 불편함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점검인 '노·사 합동 안전드림활동'으로 현장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고충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열린 안전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Q. 대전철도차량정비단의 주요 현황과 역할을 소개한다면?

대전철도차량정비단은 지난 1979년 차량정비시설 현대화를 위해 ▲인천 및 영등포 공작창 차량정비기능을 통폐합하고, 선로시설 보수업무 통합 등을 추진해 1984년 3월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덕구 평촌동에 위치한 대전철도차량정비단은 66만 735㎡의 부지에 총 95동(16만 3779㎡)의 공간에 다양한 정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총 669명의 임직원들이 전기기관차, 발전차, 객차, 화차, 사고복구 기중기의 중정비 및 개량(改良) 등 철도차량 정비업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철도 차량 정비의 중요성과 최신 정비기술을 간략히 소개해 주다면?

대전철도차량정비단은 디젤기관차를 제외한 모든 일반철도차량의 중정비를 수행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철도차량정비단입니다. 특히,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물류수송 열차'와 서민의 발인 '무궁화 열차'의 운행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비단의 대표적인 최신 정비기술은 우선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해 중정비 대상인 차량의 차륜(차의 바퀴)과 차축(바퀴를 연결해 무게를 지지하고 동력을 전달하는 핵심 부품)을 초음파 검사장치로 자동검사해 불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로봇을 활용해 차륜과 윤축(축에 바퀴를 고정해 바퀴와 축을 동시에 회전시키는 장치)의 마모된 부분을 깎아내 사람의 판단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예방하고 과학적이며 신뢰도 높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중정비가 완료된 후 운행선 투입 전 자체 주행시험기를 활용해 주행장치에 대한 진동을 분석해 결함을 사전에 발견, 결함 조치를 통한 완벽한 성능 안정성과 정비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Q. 2024년 12월 부임 이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 주신다면?

우리 단이 신규 EMU차량(ITX-마음) 중정비를 시행하는 장소로 지정됨에 따라 ▲EMU-150 중정비시설 개량공사 ▲신설 인입선(회덕역→터널 인입)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철도차량정비단은 ▲신규 차량의 안정적 정비 체계 구축 ▲정비 품질 향상 및 운영 효율성 확보 ▲철도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도 향상 ▲안정적 운영 기반 조성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구는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대전시와 대덕구 등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및 봉사 등 사회 공헌활동 대표적 사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한국철도공사 대전철도차량정비단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상생 문화 구축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취약계층 대상 도시락배달 봉사활동을 정례화해 매월 주민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덕구 주민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Q. 개인적으로 대덕구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주신다면?

36년 철도 근무 경력 중 25년을 대전에서 보내면서 대청호 산책, 계족산 산행, 중리동에서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등 대덕구는 저에게 제2의 고향과도 같은 지역입니다.

특히, 대전조차장 입체화 개발 사업으로 기존 차량기지가 대전철도차량 정비단 인근으로 이전하게 되는 등 대덕구와 철도는 아주 궁합이 잘 맞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철도시설의 집중화로 철도는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철도시설은 개발해 대덕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덕구와 철도가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Q. 끝으로 대전시민 및 대덕구민들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철도차량기지는 도심에 있기는 부적합한 시설로 기피시설이지만, 철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대덕구민들께는 다소 불편한 시설일 수도 있지만 최첨단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등 이제는 차량기지도 깨끗한 시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회덕역으로 인입선 이설과 충청권 광역철도 준공 등을 통해 한층 더 편리해진 철도 교통망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며, 지역민과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누는 대전철도차량정비단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 최전선에서 이웃의 안전 지킨다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2008년 7월 설립... 폭염·폭우·산불 등 재난 대응, 복구 앞장
대덕구 12개 동서 자발적 참여 ‘눈길’... 단원 152명 활동 나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 입은 충남 예산·아산 지역서 수해 복구 팔 걷어
장기간 폭염에 무더위쉼터 운영 점검·생수 나눔 활동 등 선한 영향력 전파
“단원들과 내 고향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



기후 위기로 국지성 집중호우, 폭염, 산불 등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이 빈번한 시대에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때 가장 든든한 존재가 바로 ‘지역자율방재단’이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거 각종 재난에 대비해 지역주민 스스로 예방·대비·대응·복구에 참여하는 민간자율방재조직이다.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단장 김미자, 이하 대덕자율방재단)은 지난 2008년 7월 설립돼 현재 12개 동에서 총 152명(2025년 6월 말 기준)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대덕자율방재단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됐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각자 생업에 종사하다가도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뛰어가 예찰 활동, 재난 안전선 설치, 응급복구 활동 등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또, 겨울철에는 빙판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해가 채 뜨지 않은 이른 새벽부터 주요 도로 및 마을 안길에서 제설 작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재난 상황이 아니더라도 언제 닥쳐올지도 모를 위기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그야말로 지역 사회의 든든한 안전 ‘파수꾼’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10여 년 전 송촌동 지역 통장으로 활동하던 중 대덕자율방재단 존재 사실을 알고 봉사의 길로 자연스레 입문했다는 김미자 단장은 “이 일은 사명감이 없으면 버티지 못합니다.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닥쳐올 재난이라 생각하면 의무감이 저절로 생기죠”라며 말문을 열었다.

실제, 김 단장의 말처럼 대덕자율방재단원들은 군인, 소방공무원, 경찰 등의 직업군처럼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김미자 단장은 “단원 모두가 내 고향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은 연습이 아닌 실전”이라고 강조했다.

60대 초반의 여성 단장에게서 느껴지는 첫인상은 ‘거침없는 당당함’이었다. 다소 군인 같은 말투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녀의 굳건한 책임감이 진하게 묻어 나오는 것은 물론 그녀가 이끄는 대덕자율방재단의 내실을 짐작

하게 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일반 봉사단체와 조금 다르다.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면 재난 대응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률적 규정이 있다. 그래야만 단원 각자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전문봉사자로 양성, 현장에 즉시 투입할 체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덕자율방재단도 △방재단 임무교육 △해빙기 대비 산불 예방 행동요령 교육 △양수기 작동 훈련 등 집중호우에 대비한 훈련과 장비 점검 등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대덕자율방재단은 이처럼 자체적인 방재단 활동 이외에 대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 아산시 등을 방문해 수해 복구 협업 활동도 펼쳤다. 국민들의 안전과 피해를 입은 분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봉사하는 만큼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낀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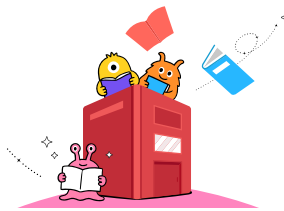
무엇보다 대덕자율방재단의 가장 큰 강점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누구보다 이웃을 잘 알고, 우리 동네 구석구석의 특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김미자 단장은 “함께 모여서 봉사도 하고, 서로 가족처럼 친밀감을 나누는 등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는 곳이 바로 대덕자율방재단”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의 안전을 우리가 지켜야 다른 사람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에 나서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2025년 리딩(Reading) 리딩(Reading) 독서문화축제 개최

일시 2025. 9. 13.(토) 11:00 ~ 17:00
주제 밖으로 나온 도서관
장소 안산도서관 및 안산공원 일원
일정



구분		시간	내용	장소
환영식		14:00~14:15	내빈소개 및 표창장 수여	주차장 메인무대
공연		14:15~15:00	마술과 비눗방울 <버블퍼포먼스>	
특강		15:00~16:30	밤코 작가 특강 <맛있는 시 그림책 이야기>	3층 커뮤니티라운지
야외도서관		11:00~17:00	자율독서, 도서관 나눔, 책 읽어주기, 페이스페인팅 등	안산공원
체험활동	외부	11:00~17:00	500인의 안산도서관, 도서관 엽서 컬러링 등 인생네컷, 베어브릭키링, 분필로 채우는 바닥드로잉 등	주차장
	내부	11:00~14:00	어린이·유아자료실 도서 속 덕구와 더기더기를 찾아라	1층 어린이자료실
		14:30~16:30	십자말 풀이를 통해 안산도서관과 더 친해지기	2층 종합자료실
공연		16:00~17:00	체험하고 즐기는 <과학실험쇼>	주차장 메인무대

9월 찾아가는 치매 고위험군 집중검진 안내



대상 해당동에 거주하는 만 75세 진입자(1950년생), 만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
※ 치매를 진단받았거나 2025년에 치매검사를 대상자는 해당 되지 않음.

시간 및 장소 예약 필수

동	일정	장소
회덕동	25. 9. 2.(화) 14:00~17:00	회덕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대덕구 대전로 1376, 2층)
송촌동	25. 9. 5.(금) 14:00~17:00	송촌동행정복지센터 세미나실 (대덕구 동춘당로94번길 11, 4층)
법2동	25. 9. 8.~9. 12. (월~금) 10:00~17:00	대덕구치매안심센터 (대덕구 동춘당로 187, 법2동행정복지센터 3층)
목상동	25. 9. 16.(화) 14:00~17:00	목상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대덕구 대덕대로1470번길 7, 2층)
석봉동	25. 9. 17.(수) 10:00~17:00	북부주민건강센터(치매안심센터 분소) (대덕구 대덕대로 1579, 석봉복합문화센터 1층)
중리동	25. 9. 30.(화) 14:00~17:00	중리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대덕구 중리남로 47, 2층)

준비물 신분증, (필요시)보청기, 돋보기
전화예약 대덕구치매안심센터(☎042-608-5426)
치매안심센터 분소(☎042-608-4427, 석봉동 예약은 분소로)

추석맞이 대덕구 자동차 무상점검 안내



일시 2025. 9. 21.(일) 09:00 ~ 16:00
※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차량점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장소 대덕구청 주차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신탄진자동차검사소(문평동 83-1)
대상 대전시민 누구나(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차종 전 승용차, 승합차, 기타 소형차량
서비스내용 부동액, 엔진오일, 각종 오일류, 워셔액 점검 후 보충, 전구류 점검, 타이어압 점검 및 보충
주최 대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대덕구지회, 북부지회)
참여인원 120명(대덕구지회 80, 북부지회 40)
후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교통안전공단 신탄진자동차검사소
문의 대덕구 교통과 차량운수담당(☎042-608-5271)

2025년 제9회 장동계족산 코스모스 축제 개최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소풍·힐링 공간의 농촌 체험 축제
장동계족산 코스모스 축제로 놀러오세요

기간 2025. 9. 26.(금) ~ 9. 28.(일) 12:00~17:00
* 개막식 9. 26.(금) 14:00
장소 장동 만남공원 일원(장동 353번지)
프로그램 가족 단위로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 예술 등 무대 구성,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문의 대덕구 자원농생명과(☎042-608-6945)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납부기한 2025. 9. 16. ~ 9. 30.까지
납세자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납부방법



구분	방법
금융기관 방문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및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부과내역 조회 및 납부 가능
계좌이체	· 가상계좌 번호로 이체(고지서 앞면 하단에 기재) · 지방세입계좌 이체
A R S	ARS(☎ 142-211) 통화,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 접속 납부
자동이체	금융기관에 신청한 자동이체 계좌 또는 카드에서 납기내 자동이체 (은행, 카드사, 위택스, 관할 자치단체 등에서 신청가능)

※ 납세의무자 외 타인이 재산세 납부하려는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납부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하나 사용가능 카드 및 포인트, 차감액 및 차감시점 등에 대해 해당 카드로 별도 문의

문의 대덕구 세정과 (☎042-608-6243)